

ART

함경아
유령 그리고 지도

LOG



<유령 그리고 지도 / 시[01WBL01V1]> 2018-2024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smuggling, bribe, tension, anxiety, censorship, ideology, approx. 1400hrs/1 person, velvet, rayon, cotton, polyester grosgrain, herringbone grosgrain ribbon tape, adhesive, wooden canvas, aluminum frame 141.7×328.4×4.4cm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전병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함경아의 자수 프로젝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폭발 버섯구름 사진을 흑백의 자수로 번안하는 등 여러 층위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왔다. 제작 과정 또한 이 사회의 다양한 차원을 아우른다. 작가는 자수 도안을 디자인하고, 중개인을 거쳐 그 도안을 북한에 수공예 노동자들에게 전달한다. 예측할 도리 없는 기한의 시간이 흐른 후 이 도안은 다시 제3자를 통해 자수의 형태로 작가에게 돌아온다.

작가는 이 자수 파편들을 갈무리하고 자신이 그 위에 손수 자수를 더하는 등 작품을 완성해 캔버스에 엮으며 작품 캡션에는 이에 투입된 노동시간을 적는다. 자수 작업자 한 명당 1,400시간을 썼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캡션을 통해 그리고 그 덕분에 다시 보게 되는 작품 속 수만 갈래의 실타래를 통해 그 익명의 존재, 그들의 육체노동이 촉각화된다.

실제 소통이 불가능한 대상과의 협업이란 끝없는 예측 불가능성의 수용을 뜻하며 작가는 애초 작품이 완성된다는 확신조차 가질 수 없다. 남북 정세에 따라 제작이 기약 없이 유예되는 불확실성 등을 지닌 작업 방식은 오로지 그만의 것이다.

사회 구조와 현상이 개인적 삶에 개입되는 사건들을 미술로 치환하는 작가 함경아. 회화,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 K1, K3 및 한옥에 마련된다. '유령 그리고 지도'를 제목으로 한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세 개의 약장으로 꾸려 공유한다. '유령'이란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모든 지시와 욕망을 환영으로 치환해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며 작가 작업 전반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개념이다. 지난 2015년 국제갤러리에서 '유령 발자국'이란 타이틀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이의 역학을 고찰한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 발자국들이 그리는, 즉 실체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사이를 끝없이 횡단하며 포착한 세계(지도)를 선보인다. 총총한 구성과 깊숙한 개념의 함경아 개인전은 11월 3일까지 개최된다. · 문의 국제갤러리 서울 02-735-8449



<유령 그리고 지도 / '너는 사진으로 왔니 아니면 기차 타고 왔니?' 2408S01> 2024 Velvet, rayon, cotton, polyester grosgrain, herringbone grosgrain ribbon tape, adhesive, wooden canvas 114×130×4cm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전병철